

식탐의 군침이 속절없이 흐르는 생강의 디미방

추사 선생의 생강 조림 사랑은 매우 유별나다. 아마 비린 생선과 고기를 좋아했던 추사로서는 아마 생강이 최고의 조미료였을지 모른다. 언젠가는 생강이 특산물인 옛 백제지역인 충청도 호서지방으로 좌천 비슷하게 떠나는 지인들에게 주는 전별시에 좌천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나 위로하는 내용보다는 호서지방에 나는 생강 조림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움을 나타낼 정도였다.

수많은 음식에 생강조림은 오후(五侯)에 비견되리니
식탐의 군침이 속절없이 식단에 흐르는구나

그 살벌한 유배길에서도 뱃머리리에 깜빡하고 주머니 하나를 놓고 내리는 데 마침 그 보따리에 생강이 들어 있었다고 아쉬워 하며 초의 선사에게 편지를 쓰는 대목에서는 그저 그의 식탐에 헛웃음만 나오게 할 정도로 생강을 좋아하셨다. 선생의 생강 사랑은 말년 과천 시절 어린 제자 행농과의 일화에서 꽂을 피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팽두부과갱채(大烹豆腐瓜薑菜) 고희부처아녀손(高會夫妻兒女孫)이라는 대련에 얹힌 이야기다.

추석이 다가오는 8월 중순쯤이었을까. 문하 제자 행농이 집으로 선생을 초대했다. 스승께서 늘 과천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말벗의 목마름이 안타까웠는지 집으로 초대한 것이다. 더욱이 가을바람이 청계산을 넘으면서 메말라 들녘을 까칠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선생의 몰골은 더욱 처연하니 유독 외로움을 타시는 선생을 하루 집에 모셔 위안이라도 삼게 해드리고 싶었을 게다. 행농은 자식이 많았는지 완당노스승께서 오신다니 큰 놈들은 제법 예를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작은 애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질러진 집안처럼 여기저기 몸을 비킬만한 곳을 찾아 숨었지만 부산함만은 감출 수가 없었다. 행농이 좌불안석하며 자식들을 탓하지만 선생은 오히려 아이들을 불러 이것저것 물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큰아이와는 짧은 시문도 주고받으며 모처럼 부산함을 즐기시는 듯했다. 모처럼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창백한 얼굴에 화기도 돌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들과 담화하며 웃고 즐기는 바람에 행농은 아예 이 행사에 끼어들지 조차도 못하였다. 이윽고 저녁 시간에 이르러서야 행농은 식사를 올리기 위해 아이들을 물리려했다. 그러나 선생은 이마저 말리며 같이 식사하기를 권했다. 아이들이 완당 노스승과 친해져 막 얼굴 붙임이 끝나 어려움이 없어진 것을 행농은 걱정했으나 선생은 오히려 자리가 불기 시작했으니 더욱 즐거워했다. 드디어 상이 올라오고 선생은 행농과 겸상을 권하고 아이들은 같은 마루에 빙 둘러앉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집안 살림이 변변치 못하여 못내 죄송해하는 부인이었지만 정성이 들어간 상차림이었다. 비록 고기국은 준비 못했어도 선생을 위해 비린 반찬도 조금 준비했고, 두루두루 아주 소박한 밥상이었다. 두부국에 오이무침 그리고

야채들이 가득 찬 밥상이었다. 특히 그 중에는 선생이 매우 좋아하시는 생강조림이 맛깔나게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만족했지만 행농은 죄스러워 했고 좌불안석이었다. 조용하고 풍성한 저녁과 격조 있는 시문과 담대로 선생의 체면을 높였어야 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했음을 한탄했다. 선생은 이렇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받았지만 행농은 늘 이 부분을 미안해했고 죄스러워했다. 그날의 추억을 선생은 잊을 수가 없었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날이었다.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선생은 행농을 위해 대련을 쓰게 된다. 오늘의 모임과 걸맞는 대구를 찾아 대련을 쓴다. 그러다가 문득 낮에 있었던 저녁상이 생각났다. 저녁밥상에 올린 생강이 생각났다. 기특한 일이었다. 생강조림은 행농의 애정이었다. 아직 생강이 나올 철은 아니었지만 이른 생강을 캐어 조림을 만들어 준 것은 스승을 향한 참으로 행농다운 표현이었다. 선생은 쓰려던 댓글을 써내려간다. 그러나 본래의 글에는 생강 대신 다른 채소가 있었으나 행농의 정성에 생강으로 바꿔 쓴 것이다. 고추대신 생강을 넣어 낮에 행농집에서 보았던 소박한 밥상과 소소한 일상의 가족을 그려낸다.